폴 리쾨르에서 악의 개념

구연상(숙명여대)

● 되짚어 보기

1. 흠(欠)과 금기(禁忌)의 관계

※ **타부(taboo)를 범하는 일**은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에 악하다.

이 말은 폴리네시아 말이다. 고대 독일 말 사케르(sacer), 그리 말 아로스(aros), 히브리 말 카데쉬(kadesh)는 그 뜻이 타부와 같다. 타부는 한편으로는 신성하고 성별(聖別)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하고 위험하며 금지되고 부정한 것이다. 타부의 반대말 노아(noa)는 평범하고 늘 범접(犯接)이 가능하다는 뜻을 갖는다. 타부의 뜻은 '성스러운 두려움(holy dread)'이라는 복합적 표현에 잘 담겨 있다. 타부에 의한 제약은 신의 계율에 근거를 두지도, 그렇다고 도덕적 반성에 근거하지도 않는다. 타부는 이유를 물을 수 없는, 즉 그 기원이 불분명한 금지이다.(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김종엽 옮김, 『토템과 타부』, 문예마당, 1995, 43-45 쪽 살핌)

타부를 위반했을 때 따르는 벌은 내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장치에 맡겨진다. 범해진 타부가 스스로 복수한다. 복수의 주체는 신이 될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다. "타부를 위반한 자는 그로 인해 자신이 타부가 된다."(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김종엽 옮김, 『토템과 타부』, 문예마당, 1995, 46 쪽) 타부에는 제사장, 추장 그리고 사자(死者)와 같은 영구적 타부와 월경, 출생, 출전 직후의 전사(戰士), 사냥과 고기잡이 같은 특수한 활동 같은 일시적 타부가 있다.(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김종엽 옮김, 『토템과 타부』, 문예마당, 1995, 47 쪽) 타부는 사람, 장소, 사물, 일시적 상태 등 비밀스러운 속성의 운반자나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키거나, 이 속성에서 비롯되는 금지를 지시한다. 타부는 신성하고,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위험하고 부정하며 무시무시한 것을 포함한다.(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김종엽 옮김, 『토템과 타부』, 문예마당, 1995, 48-49 쪽)

타부로 간주되는 인물이나 물건은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들에 비유될 수 있다. 그것들은 어떤 엄청난 힘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이다. 이 힘은 접촉을 통해 전해지며 접촉 시에 힘의 방출을 야기한 유기체의 저항력이 약할 경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타부를 범했을 때 생기는 결과는 타부 대상에 붙어 있는 마력의 강도뿐만 아니라 위반자가 갖고 있는 이 힘에 대항하여 작용하는 마나의 강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왕이나 제사장들은 아주 큰 힘의 소유자이기에 신민(臣民)들이 이들과 직접 접촉하였을 경우 이들에게 닥치는 것은 죽음이다.(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김종엽 옮김, 『토템과 타부』, 문예마당, 1995, 46 쪽)

※ **금기(禁忌)를 깨뜨리는 일**은 실패와 재앙을 낳기 때문에 악하다.

금기는 '신성(神聖)과 관련된 일상적 행위의 제약'이다. 금기는 네 갈래로 나뉜다. 제의(祭儀)의 금기는 마을을 수호해 주는 산신당이나 서낭당에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올리는 동신제에서 잘 드러난다. 동신제의 제관으로 선출된 사람은 선출된 그날부터 목욕재계를 하고, 언행을 삼가며, 바깥출입을 삼가고, 육류와 어류를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부부와 한 방에서 같이 자는 것을 금하고, 제관의 집 출입문에 금줄을 치고, 황토흙을 퍼서 외부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한다.(김태곤 지음, 『巫俗과 靈의 세계』, 한울, 1993, 87-90 쪽)

무당은 굿을 하기 전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 다음 언행을 삼간다. 초상집에 가지 않아야 하고, 육류와 어류를 먹지 않아야 하며, 동물의 살생 장면을 보지 말아야 하고, 사람이 심하게 다친 장면을 보아서는 안 된다. 만일 무당이 이러한 금기를 지키지 않은 채 '부정한 굿'을 한다면, 그 무당은 그 부정한 상황 그대로 죽거나 피를 흘리는 벌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 또 굿을 의뢰하는 고객도 굿하기 삼일 전에 목욕을 하고 언행을 삼가며 바깥출입을 삼가며 굿이 끝난 후 삼일 동안 금기를 지켜야 굿을 한 신덕을 입을 수 있다.(같은 책, 92-93 쪽)

섣달그믐 밤에는 세수(歲守)라 하여 집안 곳곳에 밝게 불을 밝히고 잠자면 눈썹이 샌다고 하면서 잡을 자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잠자는 것의 금기이고, 정월 대보름날 김치를 먹으면 논에 생고자리가 많아서 농사짓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여 김치 먹는 것을 금기하며, 한식날에는 찬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여 아궁이에 불 때는 것을 금기시한다. 첫 수확물은 반드시 성주에게 첫 수확을 고하고 감사하는 천신제를 지낸 다음에 먹어야 한다. 이것은 먼저 먹지 말라는 금기이다.(김태곤 지음, 『巫俗과 靈의 세계』, 한울, 1993, 94-95 쪽)

태교(台敎)는 통과의례(通過儀禮)의 금기 가운데 하나로서 가장 먼저 임신하기 위해 삼신할머니에게 밥과 미역국을 떠놓고 빈 다음, 그 밥을 가족 외의 딴 사람이 먹는 것을 금하고, 임신이 되면 몸가짐을 반듯이 하고 행동을 삼가며 음식을 가려 먹는다. 개고기, 상어고기, 닭고기, 문어, 오징어, 오리고기는 금기이다. 임산부는 죽은 사람(시체)을 보면 안 되고, 남의 음식의 먹어도 안 된다. 임산부가 있는 집에서 부뚜막을 뜯어 고치면 언청이를 낳는다. 임신부가 해산하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출입문에 금줄을 두르고, 황토를 펴서 외부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킨다.(김태곤 지음, 『巫俗과 靈의 세계』, 한울, 1993, 95-96 쪽)

혼례의 금기로는 신행길에 곧바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마당가에 놓은 모닥불을 가마가 넘어들어 와야 하고, 그 가마가 집안으로 들어올 때는 소금을 뿌리면서 다리미에 콩·팥을 담아다가 손으로 한 움큼씩 집어서 가마에 세게 던져야 한다. 초례 지낼 때 신랑이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 첫 딸을 낳기 때문이다. 한 해에 한 집에서 혼례를 두 번 치러서는 안 된다. 혼례 날에 그릇을 깨뜨리면 평생 불길하기 때문에 그릇 깨뜨리는 것

이 금지된다. 또 첫날 밤에 신랑이 등잔불이나 촛불을 입 바람으로 세게 내어 불어서 끄는 것을 금한다. 만약 입으로 불어서 불을 끄면 함께 사는 동안에 일생을 두고 풍파가 심하기 때문이다.(김태곤 지음,『巫俗과 靈의 세계』, 한울, 1993, 96 쪽)
일상 속의 금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밤에는 곡식이나 돈을 집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가난해지기 때문). 밤에는 손톱이나 발톱을 깎지 않는다(부모가 죽기 때문). 베개를 세워놓지 않는다. 문지방에 올라서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이에 손수건을 주고받지 않는다(눈물로 헤어지기 때문).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선을 기워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을 사주지 않는다(신고 달아나기 때문). 남의 집 광문을 열어보지 않는다. 여자가 남의 집에 가서 베개 위에 올라앉지 않는다. 동네에 초상이 났을 때는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 여자가 용마루를 타넘으면 안 된다. 여자의 속옷을 울타리에 널지 않는다. 여자가 해산하고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밤에 귀를 쑤시지 않는다. 군달에 이를 빼지 않는다. 좋은 꿈을 꾸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김태곤 지음,『巫俗과 靈의 세계』, 한울, 1993, 97 쪽)
설화 속의 금기 가운데 단군신화에는 '보지 말라'는 금기가 나온다.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는 사람이 되려고 마늘 스무 쪽과 쑥 한 줄기를 가지고 굴속에 들어가 100일 동안 이것들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않기 시작했다. 곰은 햇빛을 보지 않고 금기를 마쳐서 사람이 되었고, 단군까지 낳게 되었지만, 호랑이는 금기를 어려 사람이 되지 못했다.(김태곤 지음,『巫俗과 靈의 세계』, 한울, 1993, 98 쪽)
각씨바위 이야기에는 '뒤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가 나온다. 이 얘기는 충남 서산군 군홍면을 배경으로 한다. 옛날에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중이 그 부잣집에 가서 목탁을 치며 동냥을 청했다. 외양간에서 두엄을 치던 부자는 소똥을 한 삽 퍼서 중의 바랑 속에 가득 담아 주었다. 방안에서 명주를 짜던 며느리가 돌아서는 중을 불러 바랑 속 소똥을 털어내고 부자 모르게 광으로 가 쌀 한 말을 중의 바랑 속에 담아주었다. 그러자 중은 부자의 며느리에게 "살려 하거든 내 뒤를 따라오시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나도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하는 한 마디를 남기고 떠나갔다. 며느리는 급히 아기만 등에 업고 중의 뒤를 따라나섰다. 땅이 움찔움찔하더니 가라앉아 며느리는 중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그랬더니 뒷발을 한발 한발 옮겨놓기가 무섭게 땅이 가라앉아 시퍼런 바다가 되었다. 한동안 중의 뒤를 따르노라니까 뒤에서 벼락 치는 소리가 나서 며느리는 살던 집이 어떻게 되나 걱정되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아기를 업은 채 돌덩이로 굳어져 바위가 되었다.(김태곤 지음,『巫俗과 靈의 세계』, 한울, 1993, 98-99 쪽)

※ **백제 마지막 임금 의자(義慈)**: 임금의 흠은 국가적 재앙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악하다.

의자왕은 무왕(武王)의 맏아들로서 거세고 담력이 있고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하여 동방의 증자(曾子)로 일컬어졌지만, 641년에 즉위하자 술과 계집에 빠져 정치가 문란해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

좌평(佐平/16품 가운데 첫째) 성충(成忠)이 간절히 말렸으나 이를 듣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 성충이 극도로 쇠약하여 거의 죽게 되매 글을 썼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시국의 변천을 살펴보옵건대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릇 군사를 쓰는 데에는 그 지세를 잘 살펴서 택할 것이니 상류에 자리를 잡고 적을 맞으면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요, 만약 다른 나라 군사가 오거든 육로(陸路)는 탄현(炭峴)을 넘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수군(水軍)은 기벌포(伎伐浦/공주 금강 하류)에 적군을 들여놓지 말 것이며, 험한 요해지를 의지하여 적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659년 백제 오회사(烏會寺)에 있는 크고 붉은 말이 밤낮 여섯 시간 동안 절돌이(요사, 遶寺) 공덕을 닦았으며, 2월에는 여우 떼가 의자왕의 궁중에 들어갔는데 흰 여우 한 마리가 좌평(佐平)의 책상 위에 앉았다.
4월에는 태자궁의 암탉이 작은 참새와 흘레를 붙었으며, 5월에는 사비(泗沘) 강둑에 큰 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세 길이요, 이것을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 9월에는 대궐 안에 있는 회나무가 사람이 우는 것처럼 울었고 밤에는 대궐 남쪽 길 위에서 귀신이 울었다.
660년 봄 2월에는 서울의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하였으며 서해변에 작은 고기가 나와서 죽은 것을 백성들이 다 먹어내지 못하였고 사비수 물이 핏빛으로 변하였다. 4월에는 개구리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고, 서울의 저자 사람들이 마치 붙잡는 사람이나 있듯이 까닭 없이 놀라 달아나다가 엎어져 죽는 자가 100여 명이나 되었고, 재물을 잃어버린 자가 무수히 많았다.
6월에는 왕흥사(王興寺) 중들이 배 같은 것이 큰 물을 따라 절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모두 보았으며, 사슴만하게 생긴 큰 개가 있어 서쪽으로부터 사비수 강변에 와서 왕궁을 향하여 짖다가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었고, 성중에 뭇 개가 길바닥에 모여 더러는 짖고 더러는 울기도 하다가 잠시 후에는 흩어졌다. 또 한 귀신이 대궐 안으로 들어와 크게 소리쳐 "백제가 망한다!! 백제가 망한다!"하고는 즉시 땅 속으로 들어갔다. 왕이 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자리를 팠더니 깊이가 3척이나 되는 곳에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등에 글이 쓰여 있기를 "백제는 둥근 달바퀴요,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百濟圓月輪 新羅如新月)."라고 하였다. 무당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둥근 달바퀴라 함은 달이 다 찼다는 것을 말함이니 차면 이지러지는 법이요, 초승달과 같다는 말은 아직 차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함이니 아직 차지 못한 것은 차츰 차게 될 것이외다."라고 하니 왕이 노하여 그를 죽였다. 누가 말하기를 "둥근 달바퀴는 융성하다는 뜻이요, 초승달과 같다는 것은 미약해진다는 뜻이니 우리나라는 융성하고 신라는 미약해진다는 의미일까 하나이다."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였다.(일연 지음, 리상호 옮김, 『삼국유사』, 까치, 2010, 126-130 쪽)

※ **빙빙 도는 새**: 불길한 징조라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

왕[의자 왕]은 당나라와 신라 군사가 벌써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말을 듣고 장군 계백

(階伯)을 시켜 결사대 5천 명을 거느리고 황산(黃山)으로 출동시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했다. 네 번 접전에 모두 이를 이겼으나 군사는 적고 힘은 지쳐서 결국 패하고 계백은 여기에서 죽었다. 이때에 신라 군사는 당나라 군사와 연합하여 '나루 어귀(진구, 津口)'로 육박하여 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돌연히 웬 새가 정방[蘇 定方]의 군영 위로 빙빙 돌므로 사람을 시켜 점을 쳤더니 "반드시 원수님이 부상할 것이외다."라고 하여 정방이 겁을 먹고 군사를 끌어들여 싸움을 그만두려고 하였다.
유신(庾信)이 정방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는 새의 요괴스러운 일 때문에 하늘이 주는 기회를 놓칠 것인가? 하늘과 사람의 의사에 따라 죄악을 정벌하는 이 참에 나쁜 조짐이 어디 있을 것인가?"라고 하고는 곧 신비로운 칼을 뽑아서 새를 겨누어 치니 새가 찢어져 정방의 좌석 앞에 떨어졌다.
이때야 정방이 강 왼쪽 기슭으로 나와 산 밑에 진을 치고 싸우니 백제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일연 지음, 리상호 옮김, 『삼국유사』, 까치, 2010, 133 쪽)

※ **추남(楸南)의 점괘(占卦)**: 왕비의 부정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악행이다.

김유신(金庾信)은 18살(임신년, 612)에 검술 공부를 하여 국선(國仙/화랑,花郞)이 되었다. 화랑의 무리 가운데 백석(白石)이라는 자가 있어 유신의 통일 계획을 알고 말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먼저 비밀히 저 나라들[고구려와 백제]을 정탐한 후에 일을 착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신이 기뻐 친히 백석을 데리고 밤에 길을 떠났다. 고개 위에서 막 쉬는데 웬 여자 둘이 나타나서 유신을 따라왔고, 골화천(骨火川)에 머물 때 또 한 여자가 홀연히 나타났다. 유신공이 세 처녀들을 데리고 즐겁게 이야기를 할 때 처녀들이 맛좋은 과자를 대접하니 유신이 이것을 받아먹고 서로 품은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처녀들이 고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바라옵건대 당신이 백석을 잠시 따돌리시고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사뢸 곡절이 있습니다."
유신이 처녀들과 숲속으로 들어가니 처녀들은 금방 신령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나 "우리들은 나라를 보위하는 내림(奈林), 혈례(穴禮), 골화(骨火) 등 세 곳의 신령이외다. 지금 적국 사람이 당신을 유인하는데 당신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길을 가니 우리는 당신을 만류하고자 이곳까지 왔습니다."라는 말을 마치자 사라졌다.
유신이 이 말을 듣고 백석에게 "지금 타국으로 가면서 필요한 문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오자."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 백석을 결박해 놓고 실정(實情)을 고문하였다.
백석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본래 고구려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신라의 유신은 점치는 술객 추남(楸南)이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나라 지경에 거슬러 흐르는 물이 있어 그를 시켜 점을 쳤더니 그가 왕[보장왕]에게 아뢰되, '대왕의 부인께서 음양의 법칙을 거슬러서 이와 같은 조짐이 나타난 것이외다.'라고 하니 왕은 놀라 괴상이 여기고 왕비는 크게 노하여 이를 요사스러운 말이라고 왕에게 고하여 다시

다른 일로써 시험해 물어보아 말이 틀리면 엄중한 형벌을 내리자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쥐 한 마리를 함 속에 넣고 이것이 무슨 물건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는 틀림없이 쥐요, 마리 수는 여덟이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하여 바로 사형을 집행코자 하니 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는 바라건대 대장이 되어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니 즉시 목을 베었습니다. 쥐를 잡아 배를 갈라본즉 새끼가 일곱 마리였습니다. 그제야 그의 말이 맞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왕의 꿈에 추남이 신라 서현공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였더니 다들 말하기를 '추남이 발원을 하고 죽더니 과연 맞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를 이곳까지 보내어 당신을 모해코자 한 것이외다."
유신이 즉시 백석을 처형하고 갖은 음식을 갖추어 세 분 신령에게 제사하니 신령들이 모두 사람으로 현신하여 제사를 받았다.(일연 지음, 리상호 옮김, 『삼국유사』, 까치, 2010, 121-123 쪽)

2. 죄의 개념과 악행의 상관성에 대해

※ **포카혼타스의 죽음**은 악의 문제가 죄의 개념에 의존해 있음을 잘 보여준다.

포카혼타스 공주(Princess Pocahontas; 1596-1617)는 본명이 마토아카(Matoaka)였고, 미국의 현 버지니아(Virginia) 주에 거주했던 원주민의 왕 포우하탄(Powhatan; 1550-1618)의 딸이었다. 1607년 5월 14일, 영국의 런던회사 소속의 크리스토퍼 뉴포트(Christopher Newport)가 105명의 식민지 개척자들을 싣고 그곳에 도착했다. 그는 그 지역을 제임스타운이라 명명한 뒤 존 스미스 대위(Captain John Smith)에게 식민지 개척의 임무를 맡기고 돌아갔다. 그 해 12월 스미스는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대원들을 살리려고 원주민들의 마을에 침입하여 옥수수를 강탈했고, 총으로 원주민들을 협박하여 식량을 빼앗았다.
포우하탄 왕은 스미스를 체포하여 처형을 하려 했다. 이때 12살 된 포카혼타스 공주가 스미스를 용서해 줄 것을 애원했고, 스미스는 식량 원조까지 받고 풀려났다. 공주는 이주자이자 침략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한편 아버지 군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 주었다. 하지만 침략자들은 이러한 호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영국에서 보급된 총칼로써 원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1613년 영국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18살의 포카혼타스를 납치한 뒤 포우하탄 왕에게 영국인 포로 전원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포로가 풀려난 뒤에도 공주를 돌려보내 기커녕 영어를 가르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킨 뒤 세례를 받게 하여 레베카(Rebecca)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게다가 그들은 공주를 상처한 존 롤프(John Rolfe)와 결혼시킨 뒤 작은 배에 1년 정도 감금되었다. 공주를 볼모로 한 평화 덕분에 영국인들은 농경과 담배 재배를 할 수 있었다.
1616년 영국인들은 공주와 그녀의 한 살 된 아기 토마스(Thomas) 그리고 10여 명의 원

주민들을 영국으로 데려가 신대륙 개척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용으로 이용했다. 공주는 유럽인들의 병에 걸려 쓰러졌고, 1617년 3월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22살의 나이로 죽었다. 그 소식을 들은 포우하탄 왕도 비통해 하다가 다음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 뒤를 이은 오패찬카노프는 침략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에 맞서 영국 런던회사는 원주민 전멸작전을 명령했다. 그들은 원주민 지도자들을 평화협상에 초대한 뒤 독살했고, 1644년 오패찬카노프 왕을 생포하여 전시한 뒤 총살했다.(조찬선 지음, 『기독교 죄악사(하권)』, 평단문화사, 2000, 142-159 쪽 살핌.)

※ **프론티어 정신의 미화**: 신에 대한 자기중심적 해석은 대규모 악행을 정당화한다.

17세기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의 기름진 땅을 빼앗고 그들을 소탕하면서 황금 노다지를 쫓아 서부로 달리던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침략 정신을 개척정신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인디언을 쫓아내고 땅을 빼앗은 것을 강제적인 몰수나 침략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하였다. 청교도들은 빼앗은 땅에서 원주민들을 죽이거나 추방하고, 그들의 신앙을 부정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며 또 당연한 일로 간주했다.
유럽의 침략자들은 약 300년 동안 북중남미 원주민 1억 4천 5백만 명 가운데 1억 명을 살해했다. 1890년 북미 인구통계에 의하면 원주민 인구는 25만 명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류의 대학살은 히틀러나 스탈린에 의한 학살에 비하자면 완전히 잊힌 채로 묻혀 있다. 현재 인류는 원주민 학살자를 비난하거나 추모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1924년부터 원주민들도 법적으로는 미국시민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지난 세대의 불공성과 부정의가 보상될 수는 없다.(조찬선 지음, 『기독교 죄악사(하권)』, 평단문화사, 2000, 200-203 쪽.)

※ **청교도들의 토지 개념**: 악심의 뿌리는 사람들이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세계관에 박혀 있다.

1. 전 세계의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 경작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2. 먼저 발견한 땅은 발견한 자의 것이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예외이다.
3. 아직도 아무에게나 점유되지 않은 땅은 몰수하여 경작 가능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4.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인 원주민들은 영혼이 없는 마귀의 앞잡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민(聖民)의 번영을 위해서는 원주민을 추방하고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는 행위는 정의로운 일이다.(도미타 도라오(富田 虎男) 지음, 『アメリカ・インディアンの 歴史(아메리카 인디언의 역사』, 東京, 1986, 53-53 쪽 살핌. 여기서는 조찬선 지음, 『기독교 죄악사(하권)』, 평단문화사, 2000, 160 쪽 재인용.)

다) 죄 속에 빠져듦(악의 노예가 됨)과 해방(解放)의 문제

죄는 겉으로는 계약이나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그러한 계약이 맺어진 당시에 서로 한데 묶인(유대, 紐帶) 참된 관계, 달리 말해, 인격적 관계를 끊는 것이다. 어김으로서의 죄는 타부로서의 흠과 마찬가지도 그에 뒤따르는 **벌 또는 고난**을 가져오지만(초래, 招來), 끊음으로서의 죄는 **노여움 또는 파멸**을 불러일으킨다. 흠과 죄는 그것이 끝내 삶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 한 '악한 것'이다. 악은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깨뜨리거나 부수는 것이다. 이때 헐리는 것은 재물일 수도 있지만 명예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목숨일 수도 있다. 흠이나 죄가 될 짓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셈이다.
흠과 죄는 그 결과 때문에도 나쁘지만 그 자체로도 나쁘다. 흠은 완전성을 잃은 상태를 뜻하고, 죄는 모든 것을 가득 채워 주는 신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를 일컫는다. 불완전한 것으로서의 흠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더욱 넓고 멀리 퍼트려지고, 거짓된 것으로서의 죄는 신이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 한 인류(사람무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나가고자 한다면, 그는 흠을 깨끗이 씻어 없애야 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람이 신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신에게 묶였던 끈이 풀린다는 것을 뜻하고, 그로써 사람은 신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온다. 이는 신이 사람과 무관한 것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신은 사람이 지은 죄를 핑계로 사람을 버렸다. 사람은 신에게 도움을 부르짖을 수 없다. 신 또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 사람과 신은 완전히 남남이 되고 말았다. 사람은 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신은 사람에게 '침묵할 뿐인 것'이 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끊김을 '신의 부재'로 해석하고, 옛 신을 대체할 새로운 신을 찾는다. 사람들은 '신의 떠남'이 그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악 때문일 뿐 아니라, 현재에 그 악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서 미래에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거나 뉘우칠 줄(회개, 悔改) 모르기 때문임을 아주 모른 체한다.
이 '까막-잊어버림(망각, 忘却)'의 밑바닥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어둡게 깔려 있다. 예언자나 양심가 또는 신 자신은 저것을 일깨우기 위해 '사람무리에게 떨어질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경고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꾸짖는 외침'을 듣지 못한 채 새로운 신(우상, 偶像, idols)의 '달콤한 목소리'에 홀린다. 옛 신은 참되고 선한 반면 새로운 신은 거짓되고 악하지만, 사람들은 새 신의 속임수에 넘어가 거짓 신을 참 신처럼 섬기게 된다. 야훼는 속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우상에게 발길을 돌리지 마라. 신상을 부어 만들어 모시지 마라.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레위기 19장 4절, 공동번역)라고 부르짖는다. 야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시해 주는 것과 같다. 생명의 길은 하느님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랑하고 그가 지시하신 길을 걸으며 그의 계명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는 길, 달리 말해, 복되게 살며 번성할 길이지만, 죽음의 길은 사람들 마음

이 변하여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느님께 추방당하여 다른 신들 앞에 엎드려 그것들을 섬기게 되는 길, 달리 말해, 반드시 망하게 될 길이다. (성경, 공동번역, 신명기 30장 11-20절 살핌)

죄는 성스러운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짓이고, 그로써 행복의 세계로부터 내쫓기고, 생명을 영원히 잃은 채 죽임을 당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불행과 멸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들은 모두 하느님의 징벌로서 '악한 것'을 보여 준다. **악한 것**은 성스러움을 잃은 상태, 불행한 운명에 쫓기는 상태,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상태, 어떠한 희망과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멸망의 상태를 말한다. 선이 악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선은 성스러움, 행복, 약속의 실현, 희망의 미래, 번성 등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들의 죄의 사건을 통해 서로 반대되는 것 앞에서 선택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죄의 사건을 통해 생명은 사망의 반대가 되었고, 삶은 죽음의 반대가 되었으며, 선은 악의 반대이고, 참은 거짓의 반대가 되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뜻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 죄로 말미암은 선택의 상황에는 선악의 선택과 관련된 **윤리적 차원**뿐 아니라, 생명과 사망, 달리 말해, 영원한 것과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헛된 것과 관련된 **존재론적 차원**, 그리고 참거짓과 관련된 **인식론적 차원**이 함께 속해 있다. 선은 참이고, 영원한 존재가 되고, 악은 거짓이고, 우상에 불과한 헛된 것이 된다.

죄는 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자 신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데 있다. 죄를 짓는 일은 윤리적, 존재론적, 인식론적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죄는 사람들이 선 대신 악을 선택하고, 생명 대신 헛된 것을 선택하며, 참 대신 거짓을 선택할 때, 즉 그것들을 좋아할 때 저질러진다. 사람들이 악을 좋아하게 되는 까닭은 그들이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이고, 헛된 신에게 속았기 때문이며, 거짓을 참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신의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 우상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는 까닭은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사람들 가운데 예언가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그들이 신을 떠났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멸망의 과정에서도 신의 용서를 발견하고는 신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것을 외친다. 이러한 돌아옴(슈브, shub)은 '악에서 돌아서기'로써 시작되고, '선으로 돌아가기'를 지속함으로써 성공적이 된다. 그런데 이 낱말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다(to return from exile)'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였다.

1.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복과 저주를 담은 이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으셨다고 하자. 그러나 거기에서라도 제정신이 들어
2. <u>너희 하느님 야훼께 돌아와서</u> 너희와 너희 자손이 마음을 모아 기울이고 있는 정성을 다 쏟아 오늘 내가 지시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3.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너희를 불쌍히 보시고 <u>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u> 해주실 것이다. 너희 하느님 <u>야훼께 쫓겨 갔던 너희</u>를 만백성 가운데서 다시 모아들이시리라.

(신명기, 30장, 1절-3절, 공동번역. 밑줄은 글쓴이가 그은 것임.)

하지만 사람과 신 사이의 끊긴 관계는 신 자신이 그 관계를 돌이키지 않는 한 다시 이어질 수 없다. 신의 노여움은 관계의 단절을 뜻하고, 신의 용서와 사랑은 관계의 회복을 뜻한다. 용서(容恕)는 꾸짖던 것 또는 벌하던 바를 멈추고 마음을 풀어 너그럽게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이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돌이킨다는 것을 뜻하고, 더 나아가 마치 흠이 있던 물건을 그 흠을 없애 주어 깨끗하고 온전케 해 주는 것처럼 사람의 죄를 없이 해 준다는 것을 뜻한다. 죄의 용서는 곧 신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회복의 방법은 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죄가 어떤 객관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용서는 흠과 같은 객관적 죄가 정화될 때만 이루어진다. 신의 제물을 훔친 것과 같은 객관적 죄는 그 훔친 행동뿐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낳은 마음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인 부정한 재물들, 더 나아가 그 행위를 한 사람의 가족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신의 노여움을 사 파멸을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말 그대로 실제로 제거되어야 한다.

24. 여호수아는 제라의 아들 아간을 끌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거두어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그의 아들딸을 비롯하여 소, 나귀, 양, 그의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 나섰다.
25.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어쩌다가 네가 우리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했느냐? 너도 오늘 야훼께 참혹한 일을 당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무더기로 만들었다. 또 그의 일족을 불사르기도 하고 돌로 쳐죽이기도 하였다.
(여호수아, 7장, 24-25절, 공동번역)

신의 명령에 따른 여호수아의 처벌 방식은 너무도 끔찍하다. 게다가 처형당한 아간은 자신의 범죄를 자복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훔쳐 숨긴 모든 재산을 낱낱이 자백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아간을 인간적으로 동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야훼에 대한 범죄의 처벌이 이토록 가혹한 까닭은 그 죄가 일종의 '객관성'을 띠기 때문이다. 객관적 죄는 실질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죄는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전염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이 죄에 대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짊어지고 있던 죄'를 그 자신에게서 '내려놓는 것'을 뜻한다. 만일 그 죄가 몸과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죄에 옮아 죄를 옮기는 사람은 그 자신이 떠안거나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할 그 죄 때문에 죄의 소멸을 위해 그 자신마저 소멸을 당해야 한다. 죄인은 파멸을 피하기 위해 죄를 떨쳐 버리거나 아니면 신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
사람이 악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돌이켜 거기에서 벗어나야 할 뿐 아니라,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그는 신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사람이 죄 속에 빠져드는 까닭은 그가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로서의 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은 이러한 깨닫지 못함을 일깨워 주려 한다. 그것이 곧 용서이다. 신은 이러한 사람무리를 불쌍히 여겨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킨다. 돌이킴이 곧 용서이다. 돌이킴은 사람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온전함을 되찾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그는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는 자신의 죄를 신께 배워야 하고, 신의 절대적 관점에서 자신의 죄를 관찰해야 하며,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신' 앞에서 자신의 죄목을 고백해야 한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신의 눈으로 살핀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의식화를 가능케 한다. 사람은 신의 눈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성적으로 더 잘 알게 되고, 신이 보는 바에 부합하기 위해 자기를 바라본다. 신의 눈은 사람의 행위만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겉모습 뒤에 숨은 속모습, 즉 의도와 동기를 묻게끔 한다. 자기에 대한 물음은 죄와 악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리쾨르, 92-93 쪽)
죄는 사람을 '악의 길'로 잡아끈다. 죄악의 길은 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악의 길은 신이 가지 말라고 명하는 길이다. 이 길을 걸었던 사람은 '선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값을 치러야 한다. 돌아옴의 값, 달리 말해, 용서의 값은 흔히 대속(代贖) 또는 구속(救贖)이라 말해진다.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죄 또는 악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죗값을 치르는 일(속죄, 贖罪)은 '선에로 되돌아오기 위한 선결 과제'이다. 구속(救贖)은 주로 제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이 사람의 죗값을 지불하거나 제사장이 다양한 제의를 통해 속죄(贖罪) 의식을 치르면 죄인은 즉시 죄 없는 사람이 된다.
죄가 없게 된다는 것, 즉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달리 말해, 신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1-24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는 죗값을 치르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말해지고 있다. 둘째 아들은 부자인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챙겨 먼 고장으로 떠나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 돈이 떨어져 마침내 알거지가 되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보려 하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드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그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발단이 특이하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누가복음, 15장, 17절, 한글개역)

죄인으로서의 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줄도 안다. 그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아들은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으로라도 받아줄 것을 사정하러 길을 떠난다. 즉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둘째 아들의 죄는 모두 눈 녹듯 사라졌고, 아들은 즉시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로 상징되는 '아들의 지위'로 복권되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 대해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누가복음, 15장, 24절)
죄는 '악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만, 용서는 죄인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악으로서의 죄'는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달을 때만 발생하고,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고백하고, 그 죗값을 그 자신이 마땅히 달게 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 주어질 수 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옛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관계는 죗값을 치르는 과정을 거쳐 회복될 때도 있고, 그러한 과정 없이 용서와 동시에 성취될

수도 있다. 죄인이 자신의 죗값을 직접 치러야 한다는 믿음에는 '객관적 죄'의 개념이 놓여 있고, 죄에 대한 고백과 뉘우침만으로 성스러움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에는 '대속적 죄'의 개념이 깔려 있다.